밀은 소수의 의견 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이유는? ( 193p.)

나는 중학교 졸업 이후로는 때로는 다수의 결에 따라, 또 상당수 소수의 결에 따라 생각한다. 남들도 간다기에 고등학교도 갔고 남들도 간다기에 지금 대학교도 왔다. 사실 엄청난 소명의식이 있어서 학업을 했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했던 편에 가까웠다. 물론 나도 순수 학문을 즐겼을 때가 꽤 있었다. 중학교때만 해도 수학이나 과학 자체만으로도 좋아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했던 것 같고 학교에선 자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 밤새서 문제도 풀고 강의도 찾아보고 했었으니까. 아마 계속 그랬으면 적당히 다른 과목도 고등학교 와서 공부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시 공학을 공부하고 학업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설득이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보니 뭐 아버지의 의도가 다르셨던 것 같지만 당시에 나에겐 어릴 때부터 공학을 하고 싶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갑자기 새롭게 학문이 그냥 재미있어 보였다고 시간을 쏟는 것은 후회할 수 있다고 하셨다.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영재학교 커리큘럼 상 입시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단 것이었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고, 중학교 3학년 진학 이후 학업보단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어쩌다 보니 지역 자사고에 진학했고, 주변에는 입시에 혈안이 된 분위기가 강했다. 물론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좋게 봐주셨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학교의 입시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니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학교의 명성,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재단의 평가 등에 기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 밖에서까지 대부분 듣는 것이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은 가야하지 않겠니?’ 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사실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하다. 인생은 길다는 점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던데 인생은 경기가 아니라서 규칙이 없지 않는가. 사실 다들 행복이란 허상을 위해 달리지만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도달하는 정확한 방법도 모르는데 어찌 지도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 지름길 하나 없겠는가. 이러한 물음이 계속 들면서 몇 가지 목표가 생겼다. 내가 최소한 무너지진 않고 내 길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놓아야,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해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시작한 작업이 학교 내에서 이미지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었다. 학교에 작업한 것들도 제출을 했었고, 여러 연구 보고서들도 써서 제출했다. 그리고 외부 대회에서 상도 받고 하면서 학교가 날 인정하고 놔둘 때까지 문을 두들겼던 것 같다. 결정적으로 운 좋게 내가 외부에서 방송 찍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그나마 인정을 해주었고 수업에서 자거나,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거나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당시에만 해도 내 내신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내신으로도 연구 실적이나 다른 기타 성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다 판단했을 테고, 그렇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할 때, 내 경우를 포장해서 우리 고등학교는 낮은 성적이라도 수시 준비를 열심히 시켜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예비 학부모들에게 주어 학교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이함을 인정해준 것인지는 몰라도 정말 운이 좋게 중앙대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 때 비로소 ‘너 그러다 대학 못 간다’는 얘기를 안들을 수 있게 되었다. 막연히 내 아집으로 버텨서 운 좋게 얻은 결과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미약하게나마 있었고, 나와 같이 연구도 하고 하는 후배들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약간의 보람은 있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자연계에서 다양성이 없어지는 순간 멸종한다. 다양성이 있어야 재앙이 닥치고 환경이 바뀌어도 일부는 생존해서 다음 세대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은 변화에 있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별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지식하다는 클래식 음악도, 서양화도, 자연과학도, 짧게 보면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인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성기를 이룰 때에는 그 분야의 대가가 패러다임을 주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패러다임을 깨는 사람은 그 패러다임과 달랐기에 깰 수 있었다. 그렇게 양자역학이 섰고, 인상파도 섰으며, 현대 음악도 섰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만들어지는 지역을 묻는다면 실리콘 밸리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실리콘 밸리가 있는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LGBT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사는 지역중 하나이다.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는 예상된 결과일 지도 모른다. 과연 샌프란시스코만 우등한 유전자가 몰려있을까? 미국은 이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이민족 간의 차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면 이민족이라는 이유로, 즉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인재를 놓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누군가가 단지 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았던 지역이 실리콘 밸리 였고, 그러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들은 생물이 자연선택을 받아 진화하듯, 대중의 선택에 따라 세상을 움직였다.

일론 머스크가 왜 추왕받는 동시에 비난 받는가. 그는 현세에서 가장 실행력 좋은 이단아이기 때문이다. 실행에 필요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직접 나서기 때문이다. 처음에 X.com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 전에 웹상에 지도를 만들었을 때에도 당시에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자금으로 Space X를 세우고 Tesla를 인수했다. 당시에 전기차와 민간 우주선은 조롱받기 일수였다. 조금만 찾아보면 과거에 Tesla가 휘청하던 글은 당시에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평이 정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Space X에 대해 닐 암스트롱이 부정적인 평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머스크가 오열하는 것과 같은 인터뷰 장면만 봐도 얼마나 조롱받은 지 알 수 있다. 하지만 Tesla의 성장과 양산의 성공, Space X의 Falcon 9 발사 성공과 엔진 회수 장면, 그리고 유인 우주선 발사, 나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ㄱ